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단 구성 '기간 집중이수' 교육과정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에 따라, 직업교육 특성에 맞는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단' 32명을 구성해 계열별·전공별로 직업계고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계고 특성 상 실습이 많아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교과는 개학 이후에 집중 이수하고, 온라인 개학 중에는 기초이론 중심으로 EBS, 에듀넷 등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원격수업을 하는 '기간 집중이수제'를 운영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PC 등의 구비 현황을 조사해 온라인 수업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계고 교원 790여 명과 1만 2,000여 명의 학생이 EBS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4월 2일 나주 스페이스코워킹 전남혁신점에서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단' 교사의 원격수업

업 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 구글클래스룸, EBS온라인클래스 기반의 온라인 수업운영(해남고 윤지영 교사)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 활용(불갑초 박영민 교사) △ 클라우드 기반 화상수업(회의) 서비스(Zoom) 활용(동신대 김춘식 교수)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강의 후에는 '직업계고 실무과목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 별로 교과협의, 교육과정위원회 협의 등 집단 사고 과정을 거쳐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운영할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 시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개발돼 있는 콘텐츠가 주로 이론교과 및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없는 전문 실습교과와 경우 개학 후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학습결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연수를 받은 원격수업 지원단은 4월 3일과 4월 6일 도내 47개 직업계고를 방문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방법을 전수해 줄 방침이다.

원격수업지원단에 참여한 구림공업고 임상수 교사는 "코로나 19 대응 직업계고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학습플랫폼 활용 연수가 매우 유용했다."면서 "직

업계고 학생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업을 구축하는 데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직업계고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학생들 '호기심' 교육 지원

광주서부교육청과 관내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학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의 어려운 점, 교육청 지원에서 지원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장학사는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사들이 '정보격차'가 있는 학생 지원 방안'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며 "동학년 교사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극락초 장은선 교사는 "휴업이 연장될 때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했고,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전화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학기 초 계획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안내했고 구글 설문

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줌(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들과 화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성덕초 박재찬 교사는 "재택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는 후 이를 글로 적어봄으로써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달리셈'이라는 다크스토리 다 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글쓰기 질문을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글쓰기 질문을 공유해 휴업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청 이영주 교육장은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교육에 결손이 없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양Wee센터, '코로나블루' 막는다

광양교육청 Wee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에 나섰다.

Wee센터 전문상담가들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 중 외부 활동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심리적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화상담은 3차 개학

연기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온라인 상담 방법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Wee센터는 Wee클래스가 구축되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해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파악과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

조정자 교육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일본의 도를 넘는 '독도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과서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허성은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학원·교습소 방역 물품 추가 지원



광주동부교육청이 관내 학원·교습소의 방역 강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1일 방역물품(살균소독제)을 추가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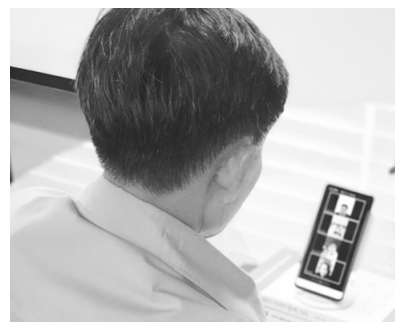
이번 지원은 관내 1,600여 개 학원·교습소에 살균소독제를 배부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일제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동부교육청은 학원의 평균면적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물량을 산정해 지원하고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통해 각 학원 및 교습소로 직접 배부했다.

동부교육청은 지난 2월 말 학원 연합회와 연계해 가정학원과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학원 등에 위생 물품(손소독제)을 지원했다.

조인호 기자

화순교육청, '온라인 개학' 대비 화상 회의



라인 개학에 따른 각급 학교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관심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해 밀도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그 외 보건, 방역, 교직원 복무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긴급 회의에 참여한 학교장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학교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사용한 Zoom 등 가능한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철저한 준비로 원격수업과 학생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의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